

# 朝鮮朝 後期小說에 나타난 世界觀의 變異樣相

—「玩月會盟宴」을 중심으로—

金 鎮 世

- |             |             |
|-------------|-------------|
| I. 序        | 4. 인성의 「孝」  |
| II. 倫理觀     | 5. 이소저의 「孝」 |
| 1. 정흠의 「忠」  | III. 思想     |
| 2. 조세창의 「忠」 | IV. 宇宙觀     |
| 3. 정잠의 「忠」  | V. 結        |

## I. 序

朝鮮朝 後期에 들어서 小說이 많이 창작되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때로는 필사의 과정을 거쳐 때로는 방각된 채로 시중에 나타난 소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상당한 분량이 사라졌을 것으로 짐작되거나와 그래도 현재 전하는 당시의 소설작품은 수백종을 헤아린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간직되어 있는 奎章閣圖書에는 조선시대 소설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 다만 奎章閣圖書와 함께 보관되어 있는 文庫本古圖書 중, 특히 一鏡文庫古圖書와 가람文庫古圖書에는 「강타공전」, 「郭海龍傳」, 「구리공경충적절지」 등의 한글소설과 「金將軍傳」, 「相思洞記」, 「鼠獄說」 등의 한문소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sup>(1)</sup> 그런데 다행히도 奎章閣에는 「玩月會盟宴」이라는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玩月會盟宴」은 조선조 장편소설 중에서 단일 작품으로는 가장 긴 분량의 작품으로서 세계 역사상 작품분량의 호한함에 있어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주목되는 작품이다. 「玩月會盟宴」은 학계에서 지금까지 두 종류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180권 180책짜리 작품과 180권 93책짜리 작품이

(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下」(서울大學校 圖書館, 1981) pp.1765 이하 참조.

그것이다. 이들 두 종류는 서로 이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중 93책 짜리 작품이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에 포함된 「玩月會盟宴」이다.

「玩月會盟宴」을 비롯하여, 조선조 장편소설을 형성하는 일군의 작품들은 昌慶宮 樂善齋에 소장되어 있다가 지난 60년대 말 비로소 처음으로 학계와 일반에 공개되었다. 주로 한 제목에 수십책의 분량을 가진 장편물로서 작품 세계에 대한 개략적 검토나 주변 인사들의 기억을 토대로 한 증언, 그리고 소장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난 시기 勢道圈의 한 모퉁이에서 창작, 향유되었던 작품들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 그동안 학계에서는 방대한 분량이 커다란 장애가 되어 활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본고에서는 奎章閣 소장 「玩月會盟宴」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을 비롯한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倫理觀, 宇宙觀, 思想的 觀心 등을 파악함으로써 당시 소설향유자들이 가졌을 세계인식상의 한 단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 Ⅱ. 倫理觀

忠, 孝, 烈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의 윤리관은 그 시기 소설의 여러 작품에 형상화되어 있다. 특히 「玩月會盟宴」을 비롯한 조선 후기 장편소설은 孝悌忠信을 규범으로 삼아 독자들로 하여금 修身의 지침으로 삼기도 하였다.<sup>2)</sup> 그러므로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행위는 忠, 孝, 烈的 전범으로 표현되어 있다. 본 항목에서는 「玩月會盟宴」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당시 윤리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정흠의 「忠」

孔子學을 崇尚하고 性理學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했던 조선왕조는 「忠」을 모든 것에 선행케 하는 倫理體系를 세웠다. 그러기에 그것은 피와 살을 주고받는 天倫인 孝보다도 그 의미가 컸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 값이 더했던 것이다.

(2) 拙稿, 李朝 後期 大河小說研究, 「韓國小說文學의 研究」(一潮閣, 1978) 참조.

정흠의 행위는 그 忠을 지킨 例의 하나다. 그는 百姓의 복지와 國家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가 禮部尙書에 임명되었을 때였다. 皇帝가 환관인 왕진을 寵愛하자 왕진은 그것을 기화로 國政을 專斷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北奴가 邊境을 침노하자 왕진은 皇帝의 親征을 주장하였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왕진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것이 不可함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정흠은 그것이 不可함을 進言하였다.

문계 격분 강개함을 더어 충국의 비로소므로 조차 심혈을 써려 황상의 실덕을 알외며 왕진의 궁흉 교륙함이 나라를 병드리고 국척 줄을 일궈라 밤비 왕진의 머리를 북시의 다라 인심을 진경하고 강병 덩당을 보너여 마선의 죄를 무르시를 주하여 소피 용담의 오르티 현의 바야흐로 불열하시미 가득하스 친당을 제신이 말뉴함을 분완하시더니 밋 정흠의 표를 보시미 현심이 크게 불합하실 쥘 아니라 소시 과도 격상하여 현의를 썼거 실덕하신 바를 세세히 배피 정시 날노 망극디주를 본바드시고 습디지티를 쳐즈 반호도 효측지 못하시를 골돌이 간하며 왕진을 버히지 아니시고 거가친명하신죽 종스의 위티하미 이의 더은 불형이 업스를 절절이 알외여시니 츠시를 당하여 성심의 통이하시미 왕진 밋거 더은 지 업는지라. 밋고 중히 녀이시미 고종의 부열과 문왕의 녀상 ㄹ튼 바의 이려듯 죽이기를 청하미 어디가 호발이나 효험을 보려오. 현의 진척하시노 오히려 정흠으로 평일의 우디하시미 심상치 아니시던 바로 비록 만승의 위엄이나 간덕로 죄를 쓰지 못하스 다만 상소를 도로 너여 주라 하시니 정상서 문계공 年하여 다섯번을 밋드리 쥘순이 현의를 썩금과 왕진 버히기를 청하미 당당이 더은지라. <玩月會盟宴 卷 8>

이때 皇帝는 크게 진노하였을 뿐 아니라 정흠을 拿來하라 하고 그를 다스렸으나 정흠은 끝내 굽히지 않고 直諫을 계속하였다.

위사 정흠을 잇그려 경하의 쓸너리 뇌정이 던척하신 바의 일개 죄슈 되여 습목낭 두하미 일신이 경외의 위티하고 화복의 밋고이미 과도함을 뉘웃지 아냐 안안조약하여 명털인명하고 통널신의하미 방가를 썩주하던 던번 두무의 일너어놀 성명이 부운의 용폐함을 면치 못하샤 정흠을 죽이고 왕진을 막음을 편케 하여 친명하는 티스를 허트르져 말고져 하시미 바로 극형을 더어 왕진을 히코져 하는 뜻을 무르시미 죄에 말놀 습으시고 버거 군신의 분을 물노 부도 태만호 소시 괴히 극악함을 슈죄하시미 현의 옥음으로 조차 더으시니 문계 참형을 당하노 안식을 불편하고 항항 격상호 과운이 호갈ㄹ트며 왕진 흥적을 위하여 충신 널스를 年하야 히호심과 금일 미신을 다스리는 죄목이 왕진의 극악을 알외므로써 웃듬 죄목을 습으시미 만만 불가하시를 주하여 친명하시노 바의 스티이 유티하를 ㄹ초 배푸니 일언 반스를 구접하미 업서 강리 열일하미 실노 대당부의 청현릭일지형이 신명의 붓그리오미 업는지라.

<玩月會盟宴 卷 8>

정흠의 이러한 直諫은 皇帝의 怒氣를 부추기기에 充分하였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황제는 드디어 그에게 炮烙之刑을 가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정흠은 황제의 親征이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社稷을 무너뜨리는 길임을 거듭 直諫하였다. 그는 여러 번 炮烙之刑을 당하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여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정흠이 죽은 뒤 황제는 왕진의 뜻대로 北奴를 親征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그 싸움에서 크게 敗하였을 뿐 아니라 北奴에게 包圍되어 만분에서 몇년을 머물면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정흠의 直諫은 옳았다. 그는 백성과 사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정흠의 이러한 「忠」은 이 작품 여러 곳에서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 2. 조세창의 「忠」

조세창의 忠 또한 그렇다. 왕진이 皇帝의 親征을 주장하였을 때 조세창은 弱冠의 翰林으로 그것이 부당함을 力說하면서 왕진을 크게 罵倒하였다.

기리 강지하고 왕단을 통회하는 분이 철골하되 노발이 상디의 목지 단널하야 손으로써 왕단을 가라쳐 너성터디 왈 조고로 환관이 정스를 간네하야 나라흔 그릇 밧드지 아닌 지 업스디라. 이제 나룻 밧 도적이 일세 현량을 함멸하고 성총을 가리와 일월디명이 부운의 용패하물 면치 못하시니 경시 엇지 전일 쫓트시를 바라리오. 비록 부월의 주하고 정확의 평하나 너 흥적을 버혀 사직의 근심을 덜던디 녕빅이라도 즐거운 우음을 먹음올디라. 너희 간흉 극악하미 점점하여 지록위마하기의 밧쳐도 성상이 세뎛디 못하시나 엇디 간치 못하리니 엇지 통회치 아니리오. 네 단실노 요고의 심장이니 우리 태조 고헩메 근노하샤 어드신 던하를 저 나룻 밧 흥적으로 그릇 밧을 해건디 너를 만단의 쫓고 장부를 회하여도 죄를 속디 못하리니 너의 삼죽을 멸하리라. <玩月會盟宴 卷 7>

이러한 조세창의 言動은 왕진의 怒氣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황제의 노여움을 사기에 이르렀다. 황제는 刑衛를 베풀고 그를 親鞠하였다. 그때 그는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신이 비록 불초 무상하오나 일즉 형실의 피려하미 업고 악녀의 범흔 바는 천만 몽니의도 세뎛디 못하옵느니 엄문디하의 디홀 비 업스오디 다만 신의 비부 쫓튼 과딜과 누의 쫓튼 지도를 헤아리디 못하고 혼 조각 당당흔 뜻이 하늘의 오로미 드리 업스 줄 모르고 의롭이 구름이 청낭하물 스모하여 동치의 나흐로 비루흔 조최 경악

의 출납하고 폐하의 능우를 밧즈오미 망국하고 호발도 성은을 감지 못하고 폐하 환관의 무리를 증용하고 불가함을 알외여 효함을 엇지 못하고 왕단 흥적을 업시치 못하는 년고로 폐하 실덕이 이의 밧츠스 간관 언로를 참육코져 하시니 이 또 신의 불초 무상하미라. 스스로 죄 죽으미 맛동하고나 년전의 부도지설을 밧하미 업스오니 무슨 거스로써 죄라 하고며 또 본 뜻이 왕단 흥적을 만단의 썩홀고져 하미오 드른 뜻이 업스오니 다시 알월 거시 업셔이다. <玩月會盟宴 卷 7>

황제는 더욱 노하였다. 황제는 그에게 加刑케 하였으나 조세창은 그것이 국가의 安危에 관한 것이라서 服罪而死하는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諫官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였다.

즈고로 원현신 친소인은 혼군의 망국지되니 이제 폐하 양영 양스기 양보 등이 후 죽고 늙거 국스를 돕지 못하고 경한이 죽으미 하날 굿칠 쇠약이 잇지 아니하고 태공을 밧칠 동양이 드시 잇지 아니니 혁혁 스윤의 민구어첩을 보디 못홀디라. 일세 충성을 점복 비육홀 보신이 잇디 아니하니 음양이 니치 아니며 스시 실셔하면 턴변이 지이공극하디 폐하 능히 아디 못하샤 솟 우히 썩이 울물 두려 티정이 더욱 숙년하를 심각디 아니시고 왕단 흥적을 증용하시미 만도의 쇼스나 언청 계용하시니 저 흥적이 뱃날 도고오 이제 유용이라 오히려 성명이 일월의 광휘를 두어 계시므로 도점 정시 망국지주와 ㄹ지 아니시나 점점 기러 통신 널스는 밧최도 못하고 녁신 흥적은 나날 성홀 바의 거가 친경코져 하신즉 국가 안위 도셔의 잇는지라. 신이 이 마디를 심각하디 격결감분하와 흥적을 버히고 군부의 근심을 덜어 종사의 흥복을 일위면 신이 복죄이스하나 쾌훈 녁시 될가 하옵느니 폐하 즈고왕스를 녁상하시건디 환관을 증용하는 님군이 망국지 아니하니 저근니 실노 왕단을 앗길 거시 업습느니 밧비 너여 버히샤 왕법을 밧키시고 디용이 가죽홀 장좌도 하야곰 마션을 쳐 물니치 쇼셔. <玩月會盟宴 卷 7>

황제는 조세창에게 重刑을 加하고 斬戮하러 하였다. 그러나 장보와 광야 등 賢良한 名儒 十餘名이 조세창을 減死定配하고 絶島安置하기를 간곡히 請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세창은 絶域北海에 安置하게 되었다.

황제의 親征은 大敗로 끝났고 列侯國公이 半이 넘게 상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조세창은 곧바로 流配地를 떠나 황제가 包圍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이때 황제는 자신의 失手를 크게 뉘우쳤다.

금일 만단의 뱃지 못홀 참육을 당하여 님의 실덕이 스스로 이 화를 취하고 충현을 살육하며 영신 흥당을 증용하디 님이 몸을 맛춘들 슈원슈한이라오마는 일노조츠 우리 명실이 업쳐져 태조 고헩메 이적의 비린 툇글을 뽏고 근노하여 어드신 턴하를 헛곳의 바리고 송휘흙의 청의로 오국성의셔 종신하를 효축홀 바를 망망이 통셔하디

니 경이 어디로조차 나르러 덤의 급하를 구하노요. 전조의 덤이 응폐부운하여 경의 충간을 물청하고 도로혀 복히 죄수를 만들며 기여충널을 무슈히 죄록하였거늘 이제 덤이 고위하를 조초리 업스더 경이 이러듯 고평하여 고인의 충심을 다하니 덤이 심담이 석목이 아니어니 엇지 곱은치 아니며 전과를 슈괴치 아니리오. 경은 덤의 그릇한 허물을 바리고 군신이 시로이 은이를 결하여 태산 교악의 밋부미 잇게 하라.

〈玩月會盟宴 卷 10〉

황제를 救한 조세창은 이빈 양선 등 賢臣들에게 赦命을 내리게 한 후 황제를 백안영에 머물게 하기 위해 자신은 北奴의 불모가 되었다. 그후 그는 나라가 平穩을 되찾을 때까지 數年을 그곳에 머물면서 고초를 겪었다. 個人的인 榮華나 私利私慾을 떠나 국가와 君主를 위해 언제든지 제 몸을 바칠 수 있는 조세창, 그는 당시 사회가 바라던 「忠」의 標本이라 할 만하다.

### 3. 정잠의 「忠」

정잠의 忠誠心 또한 놀랍다. 정잠은 事君之忠과 百行才德이 世代에 特步하던 정한의 長男이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父親의 嚴訓이 있어 忠誠心이 강했다.

좁은 국가의 몸을 허흔 비니 너 굿하여 스스로이 니를 비 아니니 모로미 툴으로써 묻혀하고 효로써 노중하여 너의 삼년을 맞는 날이라도 성주를 붓드려 적은 스경을 일시 상니의 설설치 말고 삼은 노모를 붓드려 조취를 삼산의 붓쳐 스스로 스텍시틀 세상의 고치 말기를 칠팔지만 하면 조연 십년지너의 두시 모조 형배 즐거이 만능 분니하였던 영을 퍼리니 물너가며 노움과 썩누며 모듬을 내 이르디 아니하노 좁이 스스로 헤으리미 붉으리니 유서 스장을 인봉하여 협중의 감초왔는디라 피봉의 각각 불 썩을 썩시니 썩 다뎡거던 썩혀보라. 〈玩月會盟宴 卷 3〉

문청선생 정한이 두 아들에게 남기는 遺言이다. 忠을 孝에 앞세움이 참된 孝임을 말하고 있다.

母夫人의 忠에 대한 관심 또한 대단하다. 남편인 문청선생 정한의 三喪이 끝날 무렵 皇上이 北地에서 困함을 겪고 있다는 消息을 들은 그녀는 두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종시 불행하고 국운이 망국하여 황상이 노영의 파천하시니 주우신육이오 주옥신스는 조고로 당당한 일이라. 오오 좁과 숨은 무익지너만 요동하고 선군의 경계를 조초 국가 이신되기를 생각지 아니할 줄 으라시리오. 노피 평성 너조의 슬기 늑조의 지능 으들을 창준하고 손조를 치출하물 넘나게 녀이느니 왕손가의 민왕을 일흠

과 서서의 조시의게 도록오미 이셔도 감히 왕손가의 모의 경계를 사로지 못할 비오  
 ……어미 약호므로써 오들을 만나 위지의 노오가라 권치 못할 비로더 선군의 깃치  
 신 말씀을 헛도이 저버리지 말고조 호므로 초오는 노모와 쳐슈로 더브러 누더 소묘  
 를 밧드러 궁산 심곡의 은신 사세홀 바를 심각호고 빅오는 스가 니친호여 위국던충  
 의 신조지도를 두호미 형심일가 호노라. <玩月會盟宴 卷 10>

조고로 충신이 효조 되지 못호거니와 너 오히는 적은 스경으로써 심스를 상손호  
 여 통열을 버금코자 호니 이는 실노 나의 밧던 비 아니라. 진실의 시안공 은교는  
 강등으로 향키를 넘호여 기피 머므르고조 호미 절호여 보불환복호니 종신의 혼이  
 되고 효지라 일코지 못호니 단실의 진심호여 국개 평안호미 만히 은교의 힘을 비로  
 스미니 후인이 굿터여 효라 아니호나 당부의 형시 뇌뇌노노호므로써 큰 일을 당호  
 여 잔 곡절은 도라볼 거시 아니오 반포의 빅슈황반도 유관을 두시 드러 메향의 누  
 엇거든 호물며 오히 스순을 밧지 못할 년거나 모조의 경이 유유호여 늑어가릭 더욱  
 턴눈밧기 자별호니 나는 널노써 낭패의 의탁을 삼아 비록 만니의 가미 이셔는 태산  
 의 브르므로써 당성의 구드물 기리 미들 거시오 너는 늑도록 강보의 마음이 이셔  
 취무와 질츄를 스양치 아니면 노미 쏘호 성효를 감동호여 복된 거슬 조부호고 축  
 현의 혈혈호과 경강의 무탁호미 잇지 아닐가 호노라. <玩月會盟宴 卷 10>

偏母의 자자함을 생각하고 敢히 皇帝의 邊北 苦楚을 救할 뜻을 입에 올리  
 지 못하는 孝心 강한 아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勸誘하고 있다.

이렇듯 청계공은 그 父母에게서 한결같이 忠에 대해 訓育되었기에 그는  
 失離하였던 딸 명염소저와 邂逅하였을 때에도 그 딸을 인근에 있는 妻家에  
 맡기고 北奴의 皇上을 救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고 있다.

여뵈 성주의 은혜를 밧조오미 하늘이 낮고 싸히 좁으며 불통무승호여 오군을 잡  
 하 죽지 못호며 복지의 파월호시물 팔연 멸시치 못호여 조위를 이축호고 노영을 스  
 못고조 호미 한 조각 인신의 녀치라. 나의 망극호 심시 날리 업스물 한허고 타스를  
 능히 결홀치 못호나니 여아의 슬픈 정을 모로미 아니로더 녀의 스경을 버혀 조정을  
 썩나왔거날 어이 너를 위호여 밧분 길을 늦추리오. <玩月會盟宴 卷 19>

千辛萬苦 끝에 胡地의 皇上을 嵬게된 청계 정잠의 그 첫 말은 다음과 같다.

불충쇼신이 아비 상구를 붓드러 티쥬로 도라가오미 어미 병이 시절노 점가호오며  
 아비 삼귀를 밧지 못호였소오므로 성주의 괴란호시물 능히 아지 못호음고 헛도이  
 화봉인의 성주의 슈복 빌물 효축호옵더니 종스의 불행호오며 국운이 망극호와 서결  
 구투의 작얼이 장초 만승의 밧쳐 농체 호디의 넘호시더 불충미신이 쥬옥신샤를 형  
 치 못호음고 비로소 금일의 농안을 비등호오니 신슈토목이오나 턴위를 절망호오미  
 호디 굴욕을 듯좁지 아냐 아올지라. 오너 미당호오며 간담이 봉쇄호오니 통원을 이  
 괴여 쥬홀 바를 아지 못호리로소이다. <玩月會盟宴 卷 27>

정청계는 父親의 喪事로 이미 皇上의 許諾을 받고 三喪을 지내느라고 벼슬을 그만두고 地方에 가 있었기 때문에 皇帝의 北伐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 皇上이 胡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消息을 듣고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곳에 가서 이렇듯 自身の 忠誠心이 不足하였음을 빌고 있는 것이다.

이때 皇帝는 自身이 不敏悖德하여 親小人하고 遠賢臣한 까닭에 祖宗 列聖에 辱을 끼칠 뿐 아니라 左右 賢良을 殺戮하는 殃禍를 自招하였음을 크게 後悔하였다. 그때에도 정청계는 이렇게 말하였다.

성취 일시 실덕하시므로써 제신의 충망함과 창성의 실연함이 비할 더 업스오나 명실 조종의 덕혜 너르오며 열성의 혜택이 창성의 비엿습는 고로 증민이 오덕 턴도를 숨가물 인하여 춘추의 대의와 선왕의 법도를 끼듯습는지라……폐히 호디의 굴욕 하시미 그 세월이 오리지 아니호오리니 성의를 엇지 번난하여 옥대를 손상하시물 더으시고 불충미신으로 하여곰 황공호오미 용납지 못홀 성의를 두시느니잇고. 흥적의 작난이 근일의 더하올진더 니빈 양선 등은 일시도 어측을 썬나지 못호오리니 미신으로써 호인의게 보너샤 대국 인물을 구하는 뜻을 맞츠시고 미신의 어린 충성을 붉히게 하시며 신슈불충이오나 니릉의 스희이 위물의 진항으로 드르디 아니호오며 외롭이 쇼무의 슈양치던 의를 입너너 오리니 미신 일인의 유무는 만호의 일말을 썬 힘갓고 일노빠 어장의 측면이 밋지 아니호오면 신이 호디의 쇠골분신호오나 즐거운 혼백이 되리로소이다. <玩月會盟宴 卷 27>

그는 自身을 불모로 그곳에 머물겠노라 하고는 皇上을 잠깐 백안영에 머물게 한 후 洛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정청계는 그의 말대로 皇上을 위해서는 그의 한 몸의 有無는 萬毫에서 一末을 빼냄같이 생각하였고 그러기에 그는 聖上을 위해서는 胡地에서 碎身粉骨하여도 즐거운 魂魄이 되겠노라 했다.

불모생활 六年, 그가 京師에 돌아오자 또 교지 남월 등에서 變亂이 일어났다. 朝廷大臣들은 아무도 그곳에 가겠노라 나서지 않았다. 그때 정청계는 參政이란 職位에 있으면서 自願해서 그 곳에 갔고, 또 그 뒤 西戒의 야율개를 征伐하고 돌아오기까지 장장 15년이라는 세월을 外地에서 보냈다. 그야말로 사사로운 情을 버리고 國家와 社稷이라는 大義를 지키는 정청계는 當時 사회가 바라던 忠誠의 化身이 아닐까 한다.

#### 4. 인성의 「孝」

「玩月會盟宴」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의 가정에서는 효행이 특히 두드러진



다. 인성과 인응의 효행이 대표적인 바 이들의 효행이란 모친 소씨의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소씨는 정잠의 初娶였던 양씨의 代를 이은 再娶였다. 소씨는 소희량의 畢女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기에 그녀는 譽聲이 높았다.

정부의 머무러 효봉구고하며 이순군조하고 봉스지결과 덕익지도의 영오민첩하여 일일의 천인을 덕접하며 만인을 가음아누 일호 구기며 말니미 업고 손을 높이는 帛의 선능 기묘치 아닌 거시 업스며 눈을 두로는 帛의 영민총오치 아닌 帛 업서 가스를 선치하고 상벌이 회비하여 숙리를 화우하고 친척을 돈목하며 공조 남리를 하여 이중하며 친조의 감치 아니니 종시의 여일홀진디 엇지 목강의 인조호를 족히 귀득 하리오. 안준 독기 덩지 아녀서 예성이 조조하니 드르며 보는 지 뉘 아니칭찬하리오마는 태부와 서부인은 오직 특연하며 편히 거느리며 도히 볼 뿐이러라.

〈玩月會盟宴 卷 3〉

그런데 그녀가 親子息을 낳고 나서는 그 마음에 變化가 왔다. 그 집안의 宗統을 이을 인성이 前室 양씨 소생이 아니라 정잠의 동생인 정삼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가군의 만금 증택으로 태산갓치 밋는 帛 선부인 심애오 상공의 아들이면 현마 엇지 하리오. 날을 흥모갓치 녀일지라도 내 도리는 조애저심을 극진이 하여 모조저정이 완전케 하려니와 나는 상공의 아들이 아니니 줄구의 계후 명하시미 속속부부지 탁하시미라. 이제 엇지 명녕을 위하여 친심을 허롭게 하리오. 가마니 너희 등으로 더부러 괴모를 운동홀진디 현마 뜻을 일우지 못하랴. 〈玩月會盟宴 卷 3〉

소씨는 인성을 없애고 자신의 親子息인 인증이 정씨의 宗統을 이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후 그녀는 心服婢子들을 움직여 인성의 除去를 위한 行計를 시작하였다.

지아자는 낭비라 하였더니 녹빙이 엇지 날을 도로혀 아지 못하난요. 너 비록 협조 편익하나 가파야이 적은 거슬 참지 못하여 큰 모홀 어지러이미 되지 아니리니 타일을 이라지 말고 목금의 衿성이 위고금다하여 쇼계자의 육국을 조익함과 혼형하여 두긋기미 평석의 감치 아니러니 여등이 이에 다드라는 근심치 아남죽 홀지라. 너 다만 밍세하여 衿성을 죽이고 굿치리니 여등은 좌우익이 되어 종시를 볼 썩롬이니라.

〈玩月會盟宴 卷 31〉

인성에 대한 소부인의 미움은 날로 심했고 그를 殺害하려는 뜻은 굳어만 갔다. 그녀는 인성의 糞요 며느리인 이소저마저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니쇼저 성강이 인하여 구가의 머무러 효봉구고하디 집옥심님하여 동동축축하고

이순군조하디……년성의 승학대피 아니면 엇지 그 비필이 되리오. 일개 북북청거하  
여 문호의 의장과 종사기탁이 온전하물 혜건디……소부인은 왕망의 곁공이 밧서 십  
편이 디났고 초의 티계을 운동하여 기모를 발훈 비 헛곳의 도라가며……구구히 추  
야 오동의 원탄우한하디 업스나 춘광이 방성훈디 여러가지 남다른 회피 심중의 얼  
켜 태악과 장성도곤 구든 형세의 년성부부를 부더 업시고조 주의를 경하디 아덕 니  
히을 상냥하여 합분인통하느 교모간계을 일시 반각이나 엇지 니조리오.

〈玩月會盟宴 卷 34〉

유서의 소부인이 스인과 니스저을 합디 삼켜 전출을 일인도 남기디 말고조 하는  
브로써 도부인의 부귀 영광이 세디의 무쌍하고 당부인의 안한쾌락하미 셔년 기화을  
일당춘몽으로 니로미 되여시니 당녀의 형세는 조기의 교모간계로 음작이디 못홀 바  
을 헤아리디 분하디 피오미 디극하나 오히려 그 유무의 관긴하미 스인으로 의논치  
못홀 비니 돌돌홀 분함과 각곡이 피오미 스인부부의 지는 지 업스디 능히 경이히  
히홀 조각이 업손고로 혼갓 밤마다 병이 더으므로써 슬난하고 날마다 소저을 쉬지  
못하게 보치는 중도 아덕 브조하디 간험하물 뵈지 아니하디 일양 화평하물 주하느  
듯하니 녹빙 계월 등 밧거 뉘 저 부인 마음을 알니오. 〈玩月會盟宴 卷 37〉

시사의 소부인이 시장부부를 업시치 못하물 일단 심해 각골홀 분이 되여시나 능  
히 당성을 혈우디 못하고 교악을 음죽이지 못하디 혼갓 심니의 울울통완하미 더울  
뿐이러니……. 〈玩月會盟宴 卷 38〉

부인이 청홀에 잠간 우으며 손을 저어……년성과 니시 만일 요괴로운 띠풀과 잠  
저은 목상으로써 벽간의 감초와 그 히을 입어 물물이 슬어질 위인이면 니 비록 목  
강의 어딘 덕이 업스나 족히 사랑하디 거느리고 조곰도 히홀 마음을 아닐디라. 엇  
디 괴로이 심녁을 허비하리오……하고 벼개 밧티 저근 퀘를 더듬어 일개 메일 독약  
을 너여……일종 청밀의 화하디……사랑을 주며 먹기를 권하디……혼번 마시기를  
당하디는 가히 치독하엿시를 알디니…… 〈玩月會盟宴 卷 39〉

소씨가 인성과 그 아내를 죽여 없애려는 行計는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인  
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언제나 그 계모에게 순종하였다.

사랑이 쏘 타연이 바다 거후로디 다시 시좌하엿더니 부인이 문득 물너가 안혈하  
물 명하느디라. 사랑이 굿타여 억디 아니하고 셔지의 나와 히독약을 먹으며 술을  
마즈 회구하디 괴운이 무방하디 일노부터 히독약이 낭중의 셔나디 아니하고 소시의  
악악간 포하미 날르 더으니 자연 석목이라도 보전키 어렵디라. 〈玩月會盟宴 卷 39〉

인성은 이렇게 順從하면서 그릇 생각하는 모친과 동생을 感化치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들이 언젠가는 바른 길로 되돌아오리라고 그는 確  
信하였고 또 그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였다.

꿈치 모친을 되서 이윽히 말씀하되 퇴하여 명광현의 늑아가니 부인이 아즈의 늑아감을 보타브아 그 과연 기특한 귀달이오 현호현 군지라. 이 아달을 두엇거니 늑의 단금소탁이라. 하늘이 악부의 무상하를 가상하고 도선이 찰녀의 죄악을 사하실노다. 너 전전의 죄악하여 부디 년성을 죽이려 하니 엇디 죄악의 쟁디지 아니리오. 년성의 덕현을 모르디 아니하디 늑의 년성 죽일 뜻은 두로할 길 업스니 너 십성구스하셔도 년성이 목전의 죽는 양을 보고야 굿찰디니 늑의 한 조각 마음은 물리치디 못하고 풀고조 하여도 되습기니 무샤디하로다. 년성을 죽이는 날 너 심폐는 쾌창하디 저 아달이 형을 살와 죽으려 할 거지니 어린 아히 언마하여 상하리오…… 너 년성 부부로 더브러 적세의 구리오 금성의 업원이라 저의 작하고 성효하를 보미 문득 너 마음이 쇠괴하고 피오미 더하여 밧비 죽이디 못하미 한되니 마음은 무가넉히라.

〈玩月會盟宴 卷 45〉

소씨가 인성을 죽이려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이러한 모친의 마음을 인성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친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친의 그러한 사정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근심을 하였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부친에게도 알려려 하지 않았다.

전월의 너를 년원성의 보니고 망일을 당하여 월식을 구경호시 우연이 성슈를 슬피니 현부 반드시 웅비의 결성을 조츠 종소의 유창하를 점득하리러라마는 년중모조의 주성이 살피 네 안히 주성과 신심아의 주성을 둘러 그 희르오미 비상홀 듯 하니 한번 보미 경악하를 니키지 못하리러라. 체찰이 듯조오미 만심이 송축하니 천너를 좌탁하며 원너를 목전갓치 스못는 부형을 츄마 뜨어시라 말을 꾸미리오마는 출하리 부형의 총명을 가리와 그르플 조키 쟁힐지언정 스스로 모곡를 거들며 9의 형악을 실토지 못하여……군지 친히 보고 듯지 아닌 마를 성슈로써 의려하시미 성덕의 절누하실 뿐 아니라 조모의 인조해형을 스못지 못하스 티양 의심과 녀너를 두서는 비 만호시를 함음경간하여 여츠 교어를 다시 듯고조 아니하니 그 성회 임의 덕순을 효축하여 민조와 왕상의 더오미 잇시니 원수 엇지 감등하고 괴이히 너이미 범연하리오. 〈玩月會盟宴 卷 67〉

인성이 交趾 南越의 體察使 任務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모친 소씨는 病席에 누워있었다. 인성이 그 病席을 찾았을 때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미음이 먹기 싫다면서 그것을 인성의 아들인 동창에게 먹이게 하였다. 그 미음을 받아먹은 동창이 곧 피를 토하며 거꾸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그 미음을 다시 개에게 먹이자 개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안에 큰 紛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其實인즉 소씨가 그녀의 忠婢인 제월에게 改容丹을 먹여 이소저의 모습으

로 變身케 한 뒤 이소저의 婢子인 안고를 부려서 그 미음에 毒藥을 타게 하고는 그 죄를 이소저에게 전가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때 인성은 자기 처인 이소저가 결코 음식에 置毒 따위를 하는 爲人이 아님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모친 소씨의 心思를 편하게 헤드리기 위해 그 사건의 책임을 이소저에게 추궁하였다. 그래도 소씨는 그들 부부를 대하면 자신의 복받치는 憎憤을 가누지 못하였다.

모든 눈이 놀을 흘리고 모든 입이 놀을 꾸짖디 으나도 내 과연 皎진조삭하여 죽 으미 머디 아닐 거시오 불연이면 혼 그릇 덩슈를 마셔 효효괴탄흔 세스를 니즈리니 너의 부뷔 프른 귀밧치 가시지 으녘고 전경이 만니라 무궁흔 세월의 환환쾌락하미 손으로 이 주둥을 스투쳐 괴롭고 증분된 벵를 일장고스로 니르리니 빌진디 과급히 셔도라 일가친척의 세업을 셔고 날을 너머 붓치디 마를디어다. <玩月會盟宴 卷 89>

그러한 사실을 아는 인성은 모친의 마음이 편하기를 바랐다. 소씨가 무언가 빌미를 잡아 충충한 怒憤을 나타내면 인성은 자신의 몸을 헐우워 모친의 마음을 편케 하려 했다.

모퉁이 던성하는 가운데 심봉담열하를 이기지 못하고 슬픔을 참디 못할 라는 부인의 심서 과연 스스로 니란 바 갖튼여 입승디초로부터 더우금일의 혼셔 안한하미 업스니 조기 비록 누리자의 반의와 딜츄하여 으히로 효추하여도 부인의 마음을 프러 웃는 느츠로 뵈은 길이 업스물 근심하여 스스로 몸을 가져 아모리 할 바를 아디 못하디 부인의 성흔 노를 멈츄어 몸소 별지로의 니르디 아닐 도리는 조가의 몸을 장별하여 혈육이 임이하물 보면 부인이 일본 해로하여 스스로 은란괴패하를 더으지 아닐 거시므로 의에 면관히하하여 후창하의 누리 체읍 청죄 왈 불초의 불효부상흔 죄는 만스무척이라 엇디 적은 장별노빠 큰 죄를 속하리잇고마는 조경 성덕이 오히려 궁연하를 두스 죽이물 주지 아니실 비요 불취 스스로 죽으물 더욱 죄 우히 죄를 더으 무고히 부모를 역성하여 죽으리 갖가울지라 약간 장별노빠 후일을 징계코져 하옵느니 업디여 원하옵건디 조위는 불초의 죄를 덩히 하시고 성의를 번거로이 닻르스 환후를 도리하시고 모조천성의 넉넉체체하므로써 의방지언이 아니를 베프스 눈거리로써 상디하물 두지 닻르실디니 으히 비록 몸 우히 불초디죄 이 지나 엇지 조당 성의를 간치 아니하여 모지 도림을 의쳐하리잇고. 텃일지하의 겨레를 썬 어미를 히하는 패륜 역지 잇지 아니하오리니 여츠디교를 다시 닻라시물 바르느이다.

<玩月會盟宴 卷 89>

인성은 스스로 刑具을 갖추고 그 앞에 나아가 笞杖을 청하였다. 인성은 모친 소씨가 자기를 죽여 없애지 못하여 恨스러워 하는 마음을 笞杖으로 대신 하려 했던 것이다.

소씨는 자기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인성에게 限없는 笞罰을 가하였다. 한 두대 매가 가해지고 피륙이 후란함을 보는 소씨는 저속이 그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었다. 그녀는 笞杖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인성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겨 그것으로 인하여 모친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指彈이 있을까와 걱정까지 한다.

이에 더은 즉 능히 거저치 못할 거시오 인스를 보려 거저를 못하는 날은 부인의 실덕이 드러날 고로 이에 쇼리를 부드러운고 기운을 느껴이하여 듀한덕 쇼즈의 불효무상한 죄는 심신장지라도 소유여죄니 엇지 스십장 벌을 닷구와 만분지일인들 속하리이고 마는 천흔 몸의 병이 일원즉 조위와 심부모의 성녀를 더오오니 일노빠 민울하미 깃스온디라. 감히 스명을 청하옵느니 복결조위는 텃디홍화지은으로써 불초의 죄를 스하스 슬하의 무치의 영을 잇게 하소서. <玩月會盟宴 卷 89>

인성이 母親의 失德事를 덮어두려는 노력은 대단하였다. 그는 모친의 허물이 그 부친에게나 아니면 어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 모친의 허물은 그녀의 親生 아들인 인웅에게 드러났다.

인웅이 그 친모와 雙胎兄인 인중의 허물을 털어놓고 그 解決策을 물어왔을 때에도 인성은 인웅을 나무랐을 뿐 아니라 또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타일렀다. 인웅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실, 그것도 남이 아닌 모친의 허물을 아들이 스스로 털어놓는 것이 孝와는 멀다는 것이었다.

상세 맞춤니 슬픔을 구지 좀아 안전을 느끼오고 공즈의 과도히 서둘들 진경하미 비로소 탄석고 직왈 우형이 너의 혼우를 부족타 하미 아니로디 츄마 구두의 올니지 못할 바를 일일세세히 전하를 보니 평일의 밋던 비 아니로다…… 마음의 알지언경 빈방의 혼자 안조 그 하놀과 귀신이 두리오니 츄마 마음 속의 괴록하여 티부홀 박아니니 닷기를 공부하면 엇지 처의 거들미 되리오. 그부치 일을 너 당흔즉 너를 모로리라 홀 거시 아니로디 츄마 나르기를 상세히 못할 거시오 네 쯔 타연이 닷기 들 못할 비어놀 금일 너의 전하미 크게 가치 아니코 내 세간 신기흔 말을 닷는 드시 슈미를 즈미너여 고요히 드르미 되니 엇디 히연치 아니리오. 우형이 흐치 못하여 체메 쯔 동괴를 사랑하미 일신코치 못흔지라. 이제 조경 실덕과 중메의 허물이 다 유형이 불효 불우를 빌미하미로디 정성이 미천하여 조의 도로혀지 못하고 중메의 의입하를 슈이 어진 더 닷위지 못하니 가란을 일원과 모메를 허물의 썩지은 조는 우형의 불죄라 몸을 형벌하여 명을 부월의 맛츠도 그 죄를 능히 속지 못하리니 이 심시 쯔 엇지 안연하여 업손 도하리오마는 조며 먹기와 나며 들기를 오히려 연하여 시름업손 도하니 너의 축급 초려하미 일일 마음을 티오고 애를 쫓츄과 닷룬지라. 우형이 완악하여 그러하냐 현메 조급하여 그러하냐. <玩月會盟宴 卷 90>

소씨가 이소저의 新生兒를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꿔치기한 후 그 아이를 죽이게 하였을 때에도, 또 그녀가 한군주의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꾸어 죽이도록 했을 때에도 인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성은 그 모친이 마침내 殺人하기에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몹시 걱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친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서 끝내는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인성이 인웅을 데리고 양씨가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은 모두들 인웅의 뛰어남을 극구칭찬하였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소씨는 자기의 親生兒가 그토록 칭찬을 들음을 펴 기뻐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인성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복받침을 참지 못하는 소씨는 인성과 이소저, 그리고 한군주 등 三人을 불러놓고 그들 세 사람을 다 죽이고 자신도 죽겠노라며 칼을 휘둘렀다. 이때 인웅이 들어와 모친의 칼을 빼앗고 그 失德을 힐우자 인성은 모친 앞에 나아가 동생을 나무라고 그것이 모두 자기의 허물임을 말하며 스스로 笞杖을 청했다.

인웅의 여초함이 다 소저의 죄라. 원컨데 소저를 다스리시고 〇의 약절을 도라보스 식노함심을 브라나이다……공저를 칙알 우형이 불초무상하여 디효의 맛당치 못하니 스스로 죄를 헤으려 님도쳐세함을 붓그리며 주야의 苦음을 어로만져 하눌과 귀신을 붓그리고 널노써 밋기를 크게 하고 거의 우형의 불효를 베슬가 하더니 금야의 너의 인식 브라던 비 아니라. 전혀 우형의 무형을 제때 본밧드시니 친견의 불초 불경을 심각저 아니니 무타라 우형의 죄니 엇지 너를 칙하리고.

〈玩月會盟宴 卷 133〉

인성은 笞杖을 맞으면서도 조금도 그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모친의 마음을 편케 하고 나아가 그 그릇된 성격을 바로잡음이 孝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소씨의 이러한 行爲에 대한 말이 밖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가장 우려한 사람이 인성이었다. 그는 모친의 失德事가 外部에 알려지지 않도록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간곡히 일렀다. 그러나 소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소문은 밖으로 새어나갔고 그것은 마침내 소씨의 親家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蘇氏家에서는 소공이 가족회의를 열고 그 대책을 강구한 결과 奸惡한 딸(소씨)로 인해 仁孝한 程氏家를 망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소공은 딸을 불러들여 그녀를 죽여 없애고 程氏家를 구하려고 했다.

소부인이 자신이 저지른 바 行惡이 탄로되어 부모의 추궁을 받게 되자 그녀는 죽고 말겠다고 自勁하고 말았다. 이때 아무도 그녀의 그 행동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그런데 인성은 그곳에 달려와 그녀의 危境을 수습하였다.

시고로 칼할 머추디 못하야 참독흔 경식의 나르디 쏘 밋쳐 손을 움죽이디 못하야 서 밧그로조츠 훌훌흔 인척이 급하더니 훌연 혼 슝이 등첩흔 문호를 힘운곳치 더 나치며 심슈흔 던각을 착급히 나라드는 바의 신치 슈랑하고 광치 도요하야 막막흔 턴의 음운이 스귀하고 미명효식의 흑위 조옥하야 동방의 흰 밧출 마리오던 바를 도로혀 빅일명광을 화하니……이 사름이 정상서 목지공이 아니오 워리오……심혼이 날니이고 혈위 피면하야 경식의 쫓쳐져 죽디 붓하고 스러져 엷디 붓하물 한하야 아모리 훌 줄 모로는 가온더도 부인의 언스를 버린 몸을 밧드리 조심하야 칼할 썬히 고 약을 너여 한삼을 썬히 버티고 슈디를 혈위 싱혈노빠 단약의 화하야 님의 드리오며 기리 브르디지니 혼 사름도 너드라 그 손가락 찍는 칼할 감히 머추디 못하야 임의 싱혈이 반다져 환약의 화하야 님의 드리온 비 되고 정상서 쏘 사름을 식이며 슈고를 난호려 하미 엷서 오덕 즈가 므릅 우히 모친을 밧들고 두 손으로 약을 쓰며 락후를 슬피 쫓춘 시떡이 다시 니이물 버라고 도라간 혼빅이라도 곳쳐 도라오물 기 약하야 심녁을 경갈홀 썬 아니라 모친의 회운하물 엷디 못홀던데 스스로 몸을 죽여 불효를 속고져 하니 보는 지 그 경유를 듯지 아니하니 그 성호를 감탄하고 그 경스를 슬려하미 제소로브터 하천복네의 참연통운하야 형혀 소부인이 회운치 못하야 저 효즈를 맛출가 초조착급하니 <玩月會盟宴 卷 98>

이 光景을 본 소공은 인성의 그 至誠孝를 생각하고 딸 소씨의 죄과를 용서하게 되었다.

소씨가에서 태부인이 죽은 뒤 소씨 또한 病席에 눕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死別한 모친 주태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녀는 모친에게서 경계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주부인은 그녀를 데리고 정잠의 前妻인 양씨에게로 갔다. 그녀는 양씨에게서 여러가지 말을 듣게 되었다.

녕취부인이 손의 쥐었던 옥녀의를 드러 좌우를 마르쳐 왓 맛당이 진심을 가져 부인기 나오라. 좌위 슈명하야 일보명경을 밧드리 부인 압피 드리니 그 붉은미 우쥬를 통낭하야 호리도 마리미 엷스니 눈을 드러 보되 상하 귀천 물론하고 선악을 별분하른 나르지 말고 조기 형악이 목전의 버렸는 듯홀지라. 다시 눈을 들리 조기 몸이 췌 일전 상상의 혼 시신을 버렸거늘 총지 곤계 남미 좌우로 붓드리 호음하다가 회성이 되어 명을 더하기를 원하되 그 거동이 참불인견이 경성이 턴디를 격감하는지라. 님

2은더 비는 말이 2득이 불초 년성을 벌하샤 명을 더하시고 조모의 위티함을 슈히  
 가소케 하쇼셔. 또 3오더 년성이 전세 드손 죄로 두번 어미를 앓고져 하시노요.  
 유유창턴아 츄마 이를 엇지 하시는고 하고 눈물이 벽히 소소하고 한님이 모친 시수  
 압히셔 음혈 고상하여 창턴의 무심함을 한하고 쓰라죽기를 원하여 망망히 조출 듯  
 하니 부인이 불승참연하고 크게 감동하여 든득 몸이 바아지는 듯하거늘 턴손이 아  
 미 창원이 쳐쳐하고 흥위 뉴미를 엇어 봉안의 주워 교류하니 날호여 흥누를 녀엄하  
 고 기리 탄왈 오이 지현지덕과 지효지성이 2지 아니미 업스더 썩를 만나지 못하여  
 엇지 빅우를 첨봉하노. 탄비시지유린이오 츄오도이무봉이라 첨이 박명하여 이곳튼  
 효조를 기리 봉양하여 저의 녀효를 맞지 못하고 도로혀 부인의 근심을 썩치니 혼빅  
 이 운소의 빗겨 부인의 근노함을 불안하고 저의 소조를 위하여 설위하는 비라 제  
 몸이 영화로오미 첨을 스모하고 제 몸이 슬프고 괴로오미 추모한다 하미 년성 2트  
 니를 니를 비어놀 부인이 비록 상모의 은하 범받지 아니나 오이 풍화의 경계를 먼  
 치 못하고 부지 고숙의 완하미 아니로더 오이 민천을 호양하니 첨이 유명을 격하여  
 시나 엇지 슬프를 참을 비리잇고. 하물며 년옹의 출세할 효우는 통턴하의 다시 업슬  
 지라 세상 불초조의 계감히 될 썩 아녀 첨이 절로 더브러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모조  
 의 정을 펴지 못하여시나 아버지 조식을 보지 못하므로써 간격할 비 아니오 조식이  
 아버지 보지 못하므로써 효의 브죽할 비 아니라 저의 날 향훈 정은 지극하니 첨이  
 엇지 저 사랑함을 성오의 달니 하리오. 외롭하나 오오 년성의 풍화의 성이 잇고 응  
 이 또 왕담의 공순을 불워 아니리니 부인은 개심슈덕하여 존고를 효봉하고 조녀의  
 근심을 덜며 응오의 복조를 창성케 하쇼셔. 우리 냥인이 비록 타문의 심장하여시나  
 구가의 님승함을 죄지하디 훈가지도 군조를 섬겨 타일의 동혈 툇글이 되리니 엇지  
 범연이 의논할 비리오. 부인의 근심이 곳 첨의 근심이라 엇지 저를 괘시할 비리오.  
 상때 부인의 허물을 벌하시미 응오를 죄하고져 하시니 년옹이 드손 죄 이시리오. 첨  
 이 구구한 뜻이 저의 괴질 덕힘을 초초할 바를 통셔하고 제 형의 거동을 심곡하디  
 엇지 방심할 비리잇고. 옥폐기 명을 빌고져 하미 스기 여츠하여 부인의 회파하디  
 잇는지라 혐의를 펴지 못하고 녀존당 태부인과 상의하여 금일 청하여 소유를 고히  
 니 부인이 첨의 당돌함을 허물치 아니시고 년옹의 명을 닛게 하시리잇가.

〈玩月會盟宴 卷 165〉

玉皇上帝의 朝會가 끝났다. 양부인과 주부인의 간청, 그리고 소씨의 悔過  
 로 그녀는 다시 인간세상에 나가게 되었다.

어시의 소부인이 괴운을 진정하여 몸을 편히 하고 버기의 고요히 누어 생각하디  
 조지 전전 과악을 낫낫치 상냥할수록 낫 드러 조녀를 더할 낫치 업스니 무슴 넘치  
 로 낫 드러 일문 죽당을 더하리오. 전세 과보를 명명이 썩듯고 조가의 스오나오므로  
 2요스의 신상참누를 썩칠 번하니 심골이 경한하니 이제 비록 전과를 속회하여 반  
 성형악을 굿치고 오조의 슈복을 완전코져 하나 붓그러운 낫출 드러 스름을 더할 낫  
 치 업스니 드손 낫츠로 군조를 더하리오. 썩니 함연하여 만스를 다 모르고져 하나



선악 보응지니와 유명지니의 스승화복과 슈요당단을 임의치 못할 바를 써드르니 절 일갓치 조협히 죽고져 하여 뜻 갖들가 하던 비 스라졌는지라 이씨 죽고져 하나 능히 일우지 못할지라. 이의 총지를 나호여 등을 언로만져 불승체읍 왈 내 너등의 어미지명을 비러시나 실위구적이라 너를 죽이지 못하여 노심초스호기의 니르렀거늘 너는 무슨 뜻으로 날을 위할 경성이 이티도록 호노. 아지 못게라 내 몸의 식호도 곧 더하고 스갈의셔 섬하니 츄마 스롭의 흘 비냐 상모와 민모는 비록 포호나 나의 더오지 못할 거시오 왕모와 너휘 스오나미 후의 견호는 비로되 천홍만악이 더오지 아니리니 내 몸이 죽어 가호나 슬고져 하나 츄마 낫출 드리 더인치 못호리니 이몸이 스심양지의 다 길이 업는니라 이를 장춧 엇지 호리오. <玩月會盟宴 卷 165>

소씨의 병이 낫게 되자 그녀는 모든 가족 앞에서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또 그녀는 인성의 그 지극한 孝에 감사하였다.

인성의 孝는 결실을 보았다. 성실할 뿐 假飾이 없는 인성의 孝는 당시 社會가 바라던 孝, 바로 그것이오 또 조선조 社會가 지도이념으로 추진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 5. 이소저의 「孝」

인성의 아내 이소저는 貞淑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정씨가에 오면서부터 그 出衆한 인품이 인정되어 譽聲이 높았다. 그러나 그녀는 인성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소씨에게서 많은 구박과 虐待를 받아야만 했다. 소씨는 그녀에게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많은 분량의 일거리를 주어 보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음식물에 독약을 섞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不平不滿이 없이 그저 순종할 따름이었다.

소씨가 產後인 그녀에게 매질을 하여 昏倒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어도 그녀는 尊姑인 소씨의 失德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니소저 숙숙등의 성우를 힘입고 약호의 신기호를 인하여 계오 회소하여 미움을 즈로 나오고 약물을 나오며 신정을 거두고 인스를 출혀 존고의 스호는 운명을 어드므로부터 잠간 호황하고 구송호를 더나 엄즈의 환기호심과 티부인의 도라오심을 드르며 주기 상쳐를 츄마 낫드리 빌 뜻이 업는지라 스스로 치금으로 상쳐를 가리오고 거스리는 음식을 도혼다시 먹음어 신고하여 삼킬지언정 비와타 괴로오를 낫토지 아니하고 몸을 가져 움죽이를 공부코져 하여 월난등의게 붓들려 니러날 닷호다가 쏘 능히 근력이 밋지 못하여 버리의 머리를 박고 누어시나 태부인과 존구의 명철호시 미 호번 보아 지괴호미 이실가 불승민황호터 스식호미 업고 <玩月會盟宴 卷 54>

이소저의 新生兒를 다른 집 아이와 바꾸어 없애려 하였던 소씨였지마는 그때에도 이소저는 소씨의 失德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아는 婢子들에게도 臧口숨을 내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도록 하는 여인이었다.

여등이 신심강보를 구하며 玆파의 조를 도라보내므로써 공을 삼아 어즈러이 누설함이 될진더 날노써 京참의 함익하여 세간의 잊지 아닌 불효죄인을 숨는 마타라 그 주인을 위훈 정이 이실진더 기리 호호하여 호란함을 더오지 말미 울호니라.

〈玩月會盟宴 卷 54〉

奸人들이 꾸민 筆禍事件과 外間男子 越牆事件 등으로 이소저는 벽실에 幽閉되었다가 친정으로 내침을 당하였다. 그때에도 그녀는 아무런 不平없이 태운산을 떠났다. 待罪 中에 있던 이소저이지만 先姑의 忌日을 그대로 넘길 수 없어 제사에 참여코자 그곳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녀가 마침 시어머니 소씨의 친정집 앞을 지날 때였다.

그때 소씨가에서는 호도로운 아들 인성 부부를 謀害하려는 딸의 소행은 정씨 집안을 망칠 뿐 아니라 悖德의 바탕이니 딸(소씨)에게 劇藥을 먹여 죽게 하려던 즈음이었다.

이소저는 죽석에서 血書를 써서 시어머니의 죄 사함을 진정하였다.

이에 품 스이로조츠 일척 혈서를 밧드러 태부인기 울리를 근시 관환의게 축하고 먼니 경등의 업더여 고두 청죄 왈 천비즈 월난은 정상서 폐실 니시의 소비지라 주인이 玆군의 도라보너를 인하여 두문폐호하고 불견턴일하여 므트 인스의 참여함이 업스니 세상 소식이 뜻쳤는디라. 엇디 드르며 아논 비 이시리잇고마는 금일은 선고 부인 향스일이라 몸 우리 죄루를 시러 부문을 하디함이 감히 향스를 참여함물 어들 길히 업는디라 일식이 미멸의 오히려 디자이 업디 아니미 함통의도홀 쏘이러니 턴 되 가디록 피이 녀이시고 신명이 적오하여 불시몽미의 망극한 소식이 누비잔빅을 슬오는디라 주인이 창황이 최여의 실녀 귀부를 브라 석고의 복음하여 밧쳐 필연을 출히디 못하여 혈서로써 태부인 안담하의 봉헌하여 대쥬모 군부 부인명을 더함물 북특이걸홀 비로더 문니 견슈하고 위럽이 삼엄하니 감히 벌르디져 경스를 할 길히 업스므로 천흔 비즈를 명하여 궁극히 슈치를 더듬어 구무를 인하여 업위디하를 스 못츠라 호을시 마르치를 조차 업하를 돌입호오라 일이 급하고 변이 망극하온디라 밧쳐 스상을 던쥬치 못하고 만스무속의 대죄를 범호오니 업더여 부월의 경포를 기다릴 쏘이로소이다. 〈玩月會盟宴 卷 97〉

이소저가 세번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잃게 되었을 때였다. 그 일이

소씨에 의해 처리된 것임을 안 이소저였지만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의 失德을 입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군췌 문득 소리를 늦초와 곱오더……모야의 쇼상세 부모기 고후고 누가 밤을 자 너미 여츠여츠흔 아히를 어더 다려와 구호하야 임의 심도를 어든지라……또 그 아히 강보의 훈가지로 쓰힌 거시 잇서 금남의 여츠여츠 썼더라 하니……신심강보를 일코 필연 죽으므로 아라 참통흔 비로디 능히 보명하물 어더시니 실노 기특흔지라. 일노 보아도 첩의 일흔 으히도 흑즈 이긋치 구하매 이실가 아쇠이 바라논 뜻이 이시나 하나토 극히 이상하니 엇디 다 이긋기를 바라리잇고……나부인이 고평히 듯기를 맞츠미 언단이 분명이 즈기 으진 줄 알오더 돈고의 실덕을 감히 일긋지 못하고 또 즈기 도피 참섭하미 잇는 고로 츠야 발설치 못하나 부인의 심소를 예지하여 위로코즈 하미 장두설화하여 이긋치 이르민 줄 쾌히 써드를지라. <玩月會盟宴 卷 127>

이소저의 孝心은 대단하다. 그녀는 아버이를 공경할 뿐 아니라 아버이의 허물은 입에 담으려 하지 않는 여인이었다.

어렵게 낳게 된 귀한 아들을 바꿔치기를 할 뿐 아니라 살해하려고까지한 시어머니였지만 그 시어머니의 허물을 입밖에 내지 않고 또 내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혈서를 써서 구하는 여인이었다.

孝란 아버이를 공경하고 봉양하며 그 안색을 살피 그 뜻을 살피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 아버이를 원망해서는 안된다는 儒敎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던 조선조 사회는 이소저와 같은 여인을 孝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 Ⅲ. 思 想

「玩月會盟宴」에서 찾을 수 있는 人物들의 사유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우선 사상적인 면에서는 儒敎를 숭상하는 반면 佛敎나 道敎등 다른 宗敎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공자 인용과 경용 운학 등이 賊禍를 만나 九死一生으로 살아나기는 하였으나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헤매던 때였다. 한 인심있는 사람이 그들을 방으로 불러들였을 때 그들은 그 사람을 「活佛」이라 일컫고 있다.

그 중의 한 조각 인심이 머문 지 이셔 사롬이 물의 싸졌던 모양으로 이에 와 더

운 반을 빌며 옷을 말리며 넘기를 구하다가 주인이 용납디 아니함매 타쳐로 가고 조  
 학물 보고 빨리 나와 청하여 왓 사름의 집을 츠즈왓다가 용납학물 엇디 못하고 그  
 져 나가미 불상하니 내 방이 비록 누추하나 7장 더우니 군등이 더운 거슬 구하거  
 든 이에 드러 인자 저즌 옷을 말치오며 언 거슬 늑이라. 문학 등이 감사하여 활불  
 이라 일크코 <玩月會盟宴 卷 16>

인중이 路上에서 山僧을 만나 그에게서 얻은 바 책을 그 모친께 드렸을 때  
 소씨는 아들을 몹시 꾸짖고 있다.

쇼지 부형의 산승을 비척하시물 알오더 심하의 괴이학물 니기디 못하와 그 얹히  
 나아가온즉 그 중이 문득 절하고……훈권 칩을 주며 경각의 간더 업시 조취를 감초  
 오니 그 칩의 스설이 기괴묘묘하여 군중의도 뻔죽하고 상시의도 보암죽하니 조위  
 훈번 관람하시리이가. 부인이 침음양구의 칩을 가져오라 하여 본즉……조식을 교훈  
 학티 다도라는 통호선의하여 유학터도를 웃듬하며 침스불인학물 크게 비척훈 고로  
 이 글이 군즈의 불 비 아니를 일건의 썩다라 좌우로 하여금 불을 가져오라 하여 그  
 칩을 소화할시 안식이 식식하고 소기 추상갓특여 갈오더 아디못게라 네 이 글을 보  
 아 무어시 브며 무어시 요긴타 하노뇨. 학물며 네 부형이 석가의 괴도를 원슈갓치  
 비척하여 산승을 더치 안니심을 불히 알여든 길가의 중을 보고 하마하여 그 요괴로  
 온 짐셔을 엇딘 뜻으로 어더온다. <玩月會盟宴 卷 38>

자기의 과거사와 현재의 일들을 잘 맞추어 眩惑된 朴氏는 그 尼姑에게서  
 얻은 佛經類를 딸인 장소저에게 보내어 그것으로 딸의 적국인 소소저를 모  
 함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장소저에게로 가지 않고 程氏家の  
 書軒으로 전달되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화시랑 등이 그 書冊들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원희 성문 학도라 소리 개명하고 네의 통철하거늘 엇지 불경의 허무관망학을 취  
 하여 대스로이 어더다가 보려 하노뇨. 아등이 현배로써 이런 위인으로 아지 아니  
 하였더니 금일 음송코져 가져왔시물 보면 훈심 괴학학물 니기지 못하리로다.

<玩月會盟宴 卷 42>

한림학사 정인광도 그의 아내가 佛書를 가까이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손이 용암잔열학과 가계법도 엄스온 고로 당시의 망측학오미 불도를 위임학과  
 소손의 평성의 뜻지 못하며 보다 못하던 불셔를 피갓치 날나 배고 명일이 길일이라  
 하여 공부를 등한이 아니려 명학오니 엇디 한심치 아니리잇고. 소손이 문져 경칙디  
 못훈 죄를 밧즈온 후 저를 도라보니여 석가의 도와 노당의 허무망탄훈 바를 두어

가네 어즈리이를 제방코져 하노이다. <玩月會盟宴 卷 42>

인광은 또 아내인 장소저가 佛書를 가까이하고 있는 것으로 그릇 알고 몹시 가혹하게 나무라고 있다.

성이 부인의 고절을 감연하며 일기 칭도하는 비러니 금일 부인의 형사 크게 헤아림과 다른디라. 아지못게라 존불송경하여 모습 팔즈의 유익하미 되고 쪼 모습 오는 익을 제방코져 하노요. 설스 불법을 숭상하여 만복이 밖 업스리라 하여도 너 집은 결단하여 불법으로써 선조의 죄인이 되지 못하리니 그더 송경존불코즈 훔친디 그곳지 업지 아나 산문 도란이 한두 곳이 아니어 놀 것지 오가의셔 불설과 이도를 힘하리오. 원간 산스 승니의 무리 일즉 저아비를 상하며 혹 궁극한 설우물 인하여 셔가의 켜친 도를 니어 부쳐를 존하고 경책을 음송키를 위엄하노니 세군의 신세 명도는 그런 유와 다른지라. 성이 만일 죽여셔도 그더 친당이 제시며 우리 부피 제시니 삼종지의 잇는지라. <玩月會盟宴 卷 42>

인성이 賊徒를 무찌르고 그곳에 拉致되었던 석절도의 딸과 만안의 딸을 구해 주었다. 이때 만소저는 救命大恩인 程體察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성은 그 求愛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소저는 佛門에 의지하여 정채찰과의 결연을 발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때 석소저는 그녀를 타일렀다.

우리 일시 마음을 일허 명교의 죄를 짓고 군즈의 누연이 녀이름 어드니 종신참덕이 이에 더오미 업스나 오년이 이철이오 터년이 십습이라 이십을 그음하여 슈형접네하여 군즈의 바른 경계를 기리 폐부의 삭여 다시 인눈의 통슈하리니 므스일 유문의 것친 업을 버리고 셔가 괴도의 투입하리오……부모 동귀 반셔가튼 바의 공연이 친당을 버라고 스문의 셔불금불이 드어시 위양하염죽다 하며 머리 짝근 나뉘로 동뉘 되고즈 하노요. <玩月會盟宴 卷 63>

조선조가 性理學을 思想的 支柱로 택하였으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일상생활에 혼합되었을 뿐 아니라 道敎的인 면모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士大夫家 대부분은 유교를 그들의 사상으로 받아 종전의 排佛崇儒의 指導理念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宇宙觀

조선조 후기의 소설에서 空間設定은 썩 넓다. 天上이라는 空間과 地上, 그리고 地下(龍宮)라는 空間이 하나의 垂直帶를 이루고 있고 前世와 現世,

그리고 來世라는 時間性에 따르는 垂平帶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時空 사이의 人間이란 天上과 地下에서 犯法한 存在들이 謫降한 것으로 認識되었으며 地上이란 待合室的인 性格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胡地에 간 程尙書(잠)가 병이 나서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성은 천강봉에 올라가 얼음을 깨고 청계수를 받아 그 물로 목욕하고 天神에게 그 부친의 생도를 빌었다. 그랬을 때 하늘황제는 조회를 소집하고 아비를 위해 제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도축하는 그 효성을 받아들여 아들의 목숨을 활애하여 그 아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원니 정공이 인스를 바러 세상이 장연호 가운데 혼백이 표표탕탕이 옥경의 스못츠 옥결 조회홀시 하날황제기 정녕호 도서를 밧잡고 북두성의 슈단 마련호를 보전디 닌성의 디효성덕이 일보 텨서의 7득이 빗나며 슈복이 쏘호 하원호디 금번 귀슈산의셔 도련호여 그 몸으로써 양부의 명을 비는 정성이 상달텨신호고 하달디로호여 효조의 지원을 아니쫓지 못홀지라 호여 닌성의 습십년 슈를 더러 정공의 명을 니으며 쏘 닌응의 습년슈를 감호여 그 아비의게 붓치를 닌성과 7치 하니 공이 일노조츠 삼십년을 녀슈호여 영녹부귀를 극진히 누리고 낭조의 효양이 무궁키로 마련호디 닌성이 공의 계후 되미 밧셔 무한호 지익과 간난을 니트허미로더 대효대성이 텨도를 덜원치 아니호며 신명을 텨호지 아니므로 목전의 거부을 일위고 후세의 여음이 이시리라 전경을 마련호미 원너지시 안저의 버렛는 도호며 닌응의 충효 덕행을 베뫼 뵈 닌성의게 호발도 나리디 아니호디 전세의 결원호 곳이 중호여 금성의 그 함헝호를 면치 못호리라 호여시나 즈손과 후스를 빗니 마련호믈 디극호지라.

〈玩月會盟宴 卷 28〉

하늘의 별들을 살펴 그 주성을 찾고 그 주성의 광채나 자리를 보아 그 주성에 달린 사람들을 미루어 생각하고 또 그것들에 따르는 문제들을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에 最善을 다할 뿐 天定한 數에 대해서는 순종할 뿐이다.

소공이 쳐스더려 왈 노뵈 하간의 우연이 건상을 겸망하다가 당아와 녀운의 주성을 슬피니 비웅의 길기 당당호디 당아는 병상이 크게 동호여 익슈 비경호지라 니 잠간 작법호여 방술노쎄 비웅의 길기를 가리오며 녀아의 스질을 덜고즈 호여더니 저의 덕익이 마즈 소삭홀진디 병의 위티호미 범연이 보아는 만무일망이니 가히 놀 남거니와 엇지 스스로 술스의 근호고즈 호리오마는 당아의 식모 기상으로 초년 명운의 희로오미 비상호니 기왕 변익이 천고의 희한호디 오히려 여익이 중호니 천정디원즉 인녀으로 면홀 비 아니라. 〈玩月會盟宴 卷 61〉

또 그들은 星宿란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별 하나

하나가 인간 개개인과 연결이 되어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듯이 인간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별자리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언필의 경봉 언선으로 하여금 되셔시라 하고 잠간 나와 건상을 슬피니 경공의 주성이 바야흐로 주리를 썩고주 하며 황황하며 급급흔지라. 어시 요하의 칠성 신요금을 빗혀 잡고 소리하여 별을 진압홀시 스스로 다예다름하여 귀신을 복스홀 줄을 알미 경성과 반주지도를 단갈하니 경공의 주성이 상하키를 두세번의 비로소 벧 주리의 노라가더 광풍이 더죽하며 흑무 만턴하여 성슈를 주셔히 보지 못홀지라 날호여 드러가 공을 보미 만신을 부더이고 스티를 요동하던 바 잠간 굶쳐시나 믹되 임의 썩쳐지시고주하며 면부의 양괴 업서 낮빔이 춘 지 곳튼니 이에 다드라는 회운키를 바라는 거시 인스를 모로는 죽시라. <玩月會盟宴 卷 28>

시야의 소공이 당부 그옥한 곳의 상탁과 향안을 버리고 목욕지계하여 지하와 익운을 그 신상 위질노써 소삭홀물 도천하여 반야의 밋쳐 옥합의 물을 갈고 머리 풀며 발 버서 칼 잡고 소리하여 월아성의 광치를 거들시 공이 평성의 지조를 시험치 아니하며 낮티너지 아닐지언정 본더 천지를 스뭇츠 귀신을 복스하고 우주를 혼드러 티산을 썩히며 복회를 넘뛰는 신괴 지략이 잇는지라. 엇지 월아성의 광치를 거두지 못홀리오. 별빔치 경히 황황하며 주리를 썩나 거의 썩리질 닷하더니 주성(정년광의 주성이라)의 광치 휘휘하여 월아성의 위티홀물 구하여 넷주리로 나아가는지라…… 소공이 숨일야를 던하여 이갓치 하여 월아성이 주리를 썩나 잠연이 감초이미 임의 썩리짐 갓타터 소저의 위티홀물 전일노 더으지 아냐 기뻝이 통하고 면부의 양괴 잇서 의법 시신이 되엇던 바와 잠간 다르미 잇시니 <玩月會盟宴 卷 61>

그들이 想定한 空間은 天上에서 地上, 그리고 地下에까지 擴大되어 있다. 이 공간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은 天帝, 직녀, 항아, 용 등 외에 문창성, 태을, 벽수유, 규목낭 등이고 이러한 별들은 地上의 정청계, 소씨, 인성, 인웅, 인중 등과 연결을 지우고 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의 사건은 모두가 전세의 인과관계에 따르는 것이고 또 그것은 모두 天帝의 뜻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인세 정청계는 본이 문창성으로 옥메 압히셔 문즈를 일올 계 직녀턴손이 그 풍치를 흙션하여……직녀는 비록 그 죄로써 격강하여시나 본더 턱메지손으로 지극히 존귀하니 진토중의 오러 두지 못홀 거시니……경하농의 메삼네 식용이 비상하니 함이 극히 사랑하여 농궁의 도라보너지 아니코 월궁의 피섯더니……농네 문창의 풍신을 흙션하여 함이 워진군기 보너는 반도를 더져 썩을 통하고……태율이 문창과 직녀의 계 슈은이 만흔 고로 주원하여 그 슬히 되어 은혜 감기를 원하니 장춧 하계로 나릴

시……벽슈유는 특별이 즈원하여 문계공과 화부인기 전세 슈은훈 바를 감고져 홀새  
 ……규목낭은 진간 부귀영낙을 스모하여 쯔훈 즈원하여 일시의 소부인기 투티함미  
 되엇거놀 <玩月會盟宴 卷 164>

## V. 結

朝鮮朝는 性理學을 建國理念으로 받아들인 후 一貫하여 孔孟의 儒學思想을 治國의 指導理念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三綱五倫이라는 儒教倫理는 그대로 조선조 사회의 規範으로 尊崇되었다.

그들의 文學觀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조선조를 貫通한 儒家들은 文以載道를 주장하였고 道란 三綱五倫을 바탕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학관은 조선조의 小說 특히 조선조 후기 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선조 후기에 오면서 主宗을 이루게 되는 長篇小說이 모두 한결같이 忠孝를 바탕으로 한 人倫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한 例라 하겠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면, 실학사상의 대두, 西學인 천주교의 전래와 그 擴散, 유교적 윤리질서의 동요 등이 빌미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질서가 문란해지고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 民亂의 發生 등 상당한 사회적 변모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기를 맞은 士大夫계층이나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그러한 변혁에 대처하는 강한 保守性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조 후기의 장편소설들은 대부분 그 향유자가 士大夫계층이나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작가들은 자연 현실과는 절연된 차원의 작품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玩月會盟宴」에서 抽出되는 세계관이란 忠孝를 바탕으로 조선조가 건국을 하던 당시의 지도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키고 있는 윤리규범,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이 이미 구축하였던 초경험적 세계의 인식등이라 하겠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